

북한경제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I. 2023년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 II. 2023년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 III. 2023년 북한경제 실적 평가
- IV. 2024년 북한경제 전망

〈요 약〉

2023년의 북한경제는 대외무역,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시장 물가·환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2022년보다 악화된 징후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2023년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요인이 다소 제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비보강과 함께 일정 수준의 양적 성장을 추구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북러 군사·경제협력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부차적 요인이다. 제재·코로나(국경봉쇄) 충격이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국내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한 것이 라면, 이제는 대외경제 부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회복의 속도와 수준, 나아가 지속성의 문제는 남는다.

2024년에도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6~17년부터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북한은 2022, 2023년처럼 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여건에서 2024년에 북중무역이 2023년의 증가율과 증가폭을 넘어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물론 러시아와의 무역, 경험은 별개의 사안이다. 2024년 북한경제는 경제정책과 같은 북한 국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이, 특히 북중 관계, 북러관계의 향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키워드) 북한경제정책, 북한경제실적,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 북러경협

I. 2023년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1. 경제전반의 운영방향

북한은 2022년 12월말 당 전원회의와 2023년 1월 중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23년의 경제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종전과 다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사업의 큰 방향으로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했고, 자력갱생, 정비보강 전략의 수행 등을 강조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의 8차 당대회에 제시한 5개년계획의 수행 방향과 다르지 않다.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혹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생존’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경제운영 방향에 관한 김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국가경제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해,” “올해 목표 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 수행에 총매진,”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 과녁으로 정하고”(밑줄은 필자 표시)등의 표현이다.

이와 관련, 시간이 갈수록 2023년의 경제운영에서 ‘12개 중요고지’가 크게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12개 중요고지는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비철금속) △질소비료 △세멘트(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주택) △철도화물수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고지는 2016년 7차 당대회 5개년전략에서 향후 5년간 (2016~20년) 가장 우선적인 목표 달성을 내세웠던 10개 중요현물지표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예산수입·지출 계획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2021년에는 금속,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했으나 2022년에는 금속, 화학뿐만 아니라 전력, 석탄 등을 포함한 기간공업 전반으로 분산되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농업이 예산 지출상의 최우선 분야로 부상해, 이 해金正은이 새로 제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의 이행을 위해 농업부문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늘리면서 독립적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어 2023년에도 농업부문에 지난해보다 무려 14.7%나 증가한 예산자금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해 보면 2023년의 경제운영 방향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¹⁾. 첫째, 경제정책

1) 양문수(2023), p.2.

최우선 분야의 변화이다. 5개년계획 첫 해인 2021년에는 소재산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던 산업 연관의 복구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2022년부터는 전략물자 성격의 필수 소비재인 식량생산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대북제재 및 경제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대북제재의 완화·해제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서의 식량에 주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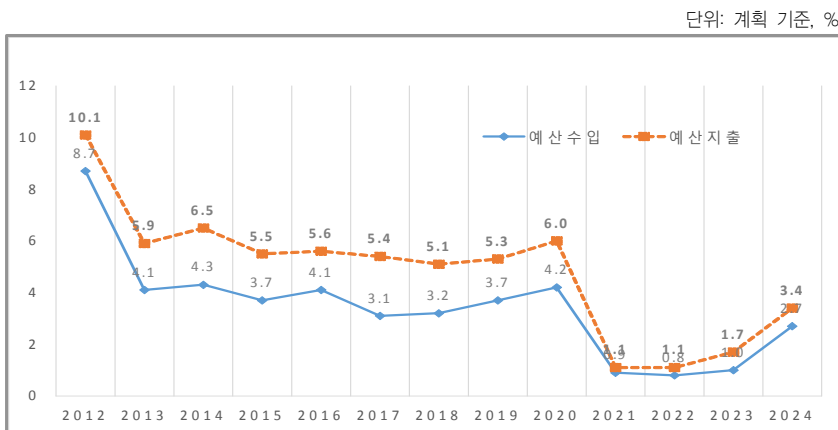
둘째, 12개 중요고지의 등장, 예산지출 증가폭의 확대(후술) 등 양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 무게의 상대적 증가이다. 김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2023년은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동시에 12개 중요고지의 목표 달성을 통해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 수행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즉 정비보강을 중점 추진한다고 해도 핵심 분야의 양적 생산목표 달성도 동시에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국경봉쇄 완화에 따른 대외무역 증가 가능성 등 경제운영 여건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혹은 2021년부터 5개년계획에 착수했으나 2021-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운영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5개년전략(2016~20년)에 이어 5개년계획 (2021~25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2. 국가재정 운영 기조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지출의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1, 2022년에 급격히 하락했다(계획 기준, 그림 1 참조).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에도 연간 3~5%를 유지했으나 2021, 2022년에는 1% 전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그림 1〉 국가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노동신문, 북한의 매년 최고인민회의, 각 연도 예산수입 지출 계획 발표

2021년에 예산수입과 지출의 증가율이 각각 0.9%와 1.1%로 책정 되었고 이어 2022년에도 각각 0.8%와 1.1%로 정해졌다. 이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게다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이다.

물론 북한정부는 제재 및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예산수입 증대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

는데 이와 관련, 내각총리는 4년 연속(2021, 22, 23, 24년),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2023년에는 예산수입 및 지출의 증가율이 각각 1.0%와 1.7%로 책정되었다. 이는 2021, 22년보다 약간 상향조정된 것이었다²⁾. 이는 앞에서 보았던 경제정책기조의 약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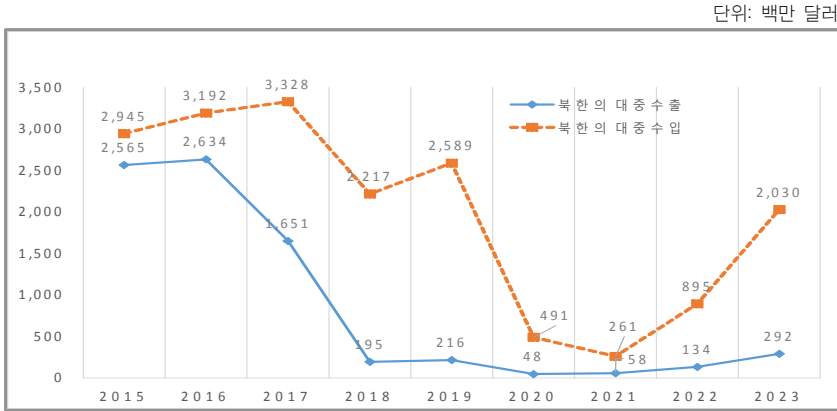
II. 2023년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1. 북중무역 동향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다. 북중무역총액은 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억 달러 및 3억 달러 수준으로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렸으나 2022년에는 10억대를 회복했고, 2023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울러 2022년에 10억 2,975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22.6%의 놀라운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2023년에는 23억 2,266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25.6%의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 그리고 2024년에는 예산수입 및 지출의 증가율이 각각 2.7%, 3.4%로 다시한번 상향조정되었다. 2024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그림 2〉 대북제재 · 코로나 이후 북중무역의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 2024.3.7.)

2023년의 북중무역 규모를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의 규모와 비교해 보자. 지난해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억 9,242만 달러로 2019년(2억 1,552만 달러)에 비해 38.1% 많았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20억 303만 달러로 2019년(25억 8,889만 달러)보다 23.1% 적었으며, 2023년 북중무역 총액은 2019년(28억 4,399만 달러)보다 18.4% 적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북중간 수출입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과 2023년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 수준을 상당 정도, 즉 80% 전후 회복했다. 둘째, 그런데 수출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이와는 달리 수입과 무역총액은 아직까지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사실 2022년 8월 북한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해 국경봉쇄 완화를 단행했는데 이를 전후해 해상 화물운송과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

했다. 게다가 일부 북중 육로 구간에서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되면서 북중무역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북중간 육상운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둥-신의주간 화물트럭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사실 2023년 8월에 국경봉쇄 해제가 공식화되는 듯하면서 중국내 체재하고 있던 북한 인력 2천명이 귀국했고, 이어 9월말에는 외국인 입국 허용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관광목적 입국은 불허하는 등 북중간 인적왕래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최소한 북중간에는 아직 엔데믹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 원인이 북한측에 있는지 중국측에 있는지, 아니면 양측 모두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어 북한의 품목별 대중수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3년 북한의 5대 대중수출품목은 가발·가수염, 합금철, 텅스텐, 몰리브덴, 전기에너지였다. 이들 품목 중에서는 단연 가발·가수염(HS 6704)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 품목의 수출액은 2022년에 1,158만 달러로 전년(372만 달러)보다 3,006.3% 증가했고, 이어 2023년에는 1억 6,727만 달러로 전년보다 1,346.3% 증가했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도 눈에 띄지만 이 품목은 북한이 대북제재 이후에 새로 발굴한 수출 주력제품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5대 수출품목 중 3가지는 합금철, 텅스텐, 몰리브덴 등 광물로서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이거나 비제재품목이라고 주장되는 품목들이다. 한편 5대 수출품목의 2023년 실적을 보면 가장 큰 수출품인 가발·가수염은 2019년 실적을 5배 이상 상회했고, 텅스텐과 전기에너지는 2019년 실적의 2배 수준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합금철은 3.1% 넘어서는데 그쳤고, 몰리브덴은 오히려 19.9% 하회하고 있다.

〈표 1〉 대북제재 · 코로나 이후 북한 주요 수출품 대중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

	가발·가수염 (HS 6704)		합금철 (HS 7202)		팅스텐 (HS 2611)		몰리브덴 (HS 2613)		전기에너지 (HS 27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627	(124.1)	13,400	(Δ27.8)	494	(Δ8.4)	4,394	(Δ5.9)	4,745	(Δ43.7)
2016년	2,375	(278.5)	18,469	(37.8)	409	(Δ17.2)	4,020	(Δ8.5)	5,756	(21.3)
2017년	8,717	(267.1)	22,380	(21.2)	3,9458	(864.6)	4,454	(10.8)	10,981	(90.8)
2018년	22,383	(156.8)	28,320	(26.5)	18,487	(368.6)	6,827	(53.3)	11,392	(3.7)
2019년	31,064	(38.8)	31,088	(9.8)	12,555	(Δ32.1)	8,957	(31.2)	11,429	(0.3)
2020년	2,231	(Δ92.8)	10,732	(Δ65.5)	4,548	(Δ63.8)	1,076	(Δ88.0)	11,848	(3.7)
2021년	372	(Δ83.3)	26,816	(149.9)	604	(Δ86.7)	-	(Δ100.0)	16,942	(43.0)
2022년	11,565	(3,006.3)	26,951	(0.5)	30,922	(5,018.4)	13,657	-	20,386	(20.3)
2023년	167,269	(1,346.3)	32,058	(19.0)	25,944	(Δ16.1)	7,172	(Δ47.5)	22,265	(9.2)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 2024.3.5.)

이어 북한의 품목별 대중수입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입은 중간재와 소비재로 구분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요 수입 중간재는 거의 모든 품목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중간재인 플라스틱 제품(HS 39)의 2023년 수입액은 2억 1,217만 달러로 2022년(전년대비 222.8% 증가)에 이어 2023년에도 81.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서 2019년 수입액의 7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제재 ·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한 가발, 가수염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 즉 가발 재료 등(HS 6703)의 2023년 수입액은 1억 6,041만 달러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132.3%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는 2019년 수입액의 732.1%에 해당되는 규모, 즉 8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의류 생산을 위한 중간재인 섬유류(HS 54, 55)의 2022년 및 2023년 수입액은 각각 6,752만 달러, 1억 2,839만 달러로 2022년에 전년

대비 377.2%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전년대비 90.1%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2019년 수입액의 52.2%에 달하는 규모로 회복되었다. 또한 고무제품(HS 49) 수입액도 2022년에 전년대비 102.7% 증가한데 이어 2023년에도 전년보다 5.8% 증가한 6,60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수입액보다 5.0% 많은 규모이다.

이와 함께 식료품의 대표적인 중간재이면서 동시에 최종소비재인 당류 및 설탕(HS 17)의 수입액은 2022년에 3,048만 달러로 전년대비 534.2%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는 7,366만 달러로 전년보다 141.7% 증가를 기록, 2년 연속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류 및 설탕은 2023년 수입액이 2019년 수입액보다 165.9%나 많게 되었다. 아울러 식료품의 중간재이자 최종소비재인 대두유(HS 1507)의 경우, 2022년에 4,913만 달러, 2023년에 9,317만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627.2%, 89.6%의 증가를 나타냈다. 따라서 대두유는 2023년 수입액이 2019년 수입액의 75.8%에 달하게 되었다.

소비재 수입의 경우, <표 3>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핵심 수입 소비재인 곡물류, 의류, 담배, 가구, 의약품, 신발, 과일 등 모든 품목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소비재의 2023년 수입액은 2019년의 수준을 상당 정도 회복했다. 곡물류가 2019년의 77.9%, 의류가 75.2%, 담배 83.2%, 가구 87.8%, 신발 68.8%에 달했으며 심지어 의약품은 2019년 수입액을 넘어서서 131.3% 수준에 달했다.

〈표 2〉 대북제재 · 코로나 이후 북한 주요 수입중간재의 대중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플라스틱	(HS 39)	가발재료	(HS 6703)	섬유류	(HS54+55)	비료	(HS 31)	고무	(HS 49)	당류및설탕	(HS 17)	대두유	(HS 150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68,037	(Δ13.1)	302	(72.3)	214,429	(Δ18.3)	19,508	(Δ39.1)	75,296	(Δ12.4)	5,556	(Δ29.8)	103,978	(Δ7.4)
2016년	204,533	(21.7)	2,305	(663.2)	258,226	(48.2)	37,623	(92.9)	79,041	(5.0)	3,779	(Δ32.0)	98,110	(Δ5.6)
2017년	231,388	(13.1)	6,597	(186.2)	298,485	(15.6)	36,430	(Δ3.2)	59,522	(Δ24.7)	38,655	(922.9)	111,442	(13.6)
2018년	221,772	(Δ4.2)	13,864	(110.2)	191,519	(Δ35.8)	84,780	(132.7)	55,765	(Δ6.3)	40,011	(3.5)	135,631	(21.7)
2019년	274,558	(23.8)	21,912	(58.0)	245,743	(28.3)	43,164	(Δ49.1)	62,914	(12.8)	44,395	(11.0)	122,859	(Δ9.4)
2020년	35,790	(Δ87.0)	2,177	(Δ90.1)	27,463	(Δ88.8)	5,450	(Δ87.4)	24,364	(Δ61.3)	32,490	(Δ26.8)	65,835	(Δ46.4)
2021년	36,282	(1.4)	-	-	14,148	(Δ48.5)	24,207	(344.1)	30,814	(26.5)	4,805	(Δ85.2)	6,757	(Δ89.7)
2022년	117,114	(222.8)	7,186	-	67,519	(377.2)	5,425	(Δ77.6)	62,466	(102.7)	30,476	(534.2)	49,134	(627.2)
2023년	212,166	(81.2)	160,412	(2,132.3)	128,385	(90.1)	82,236	(1,415.9)	66,070	(5.8)	73,655	(141.7)	93,172	(89.6)

자료: 상동

〈표 3〉 대북제재 · 코로나 이후 북한 주요 수입소비재의 대중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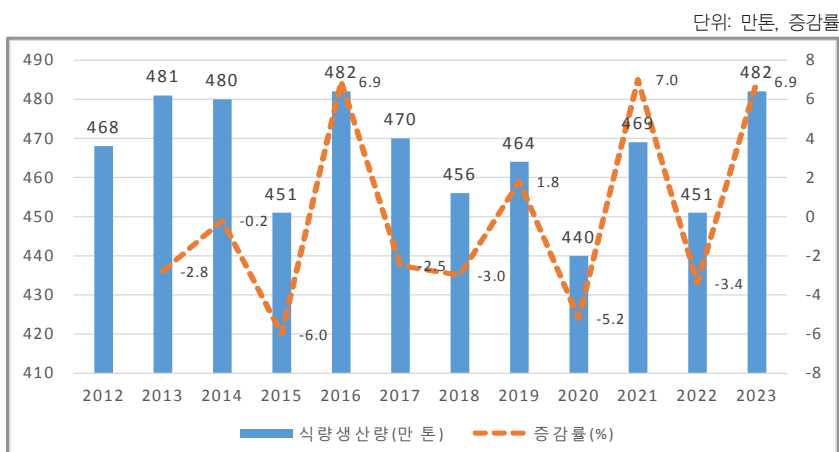
	곡물류	(H10+11)	의류	(HS61+62)	담배	(HS 24)	가구	(HS 94)	의약품	(HS 30)	신발	(HS 64)	과일	(HS 0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21,680	(Δ73.4)	129,570	(Δ15.8)	23,535	(Δ216)	42,980	(Δ23.7)	24,905	(2.9)	35,204	(Δ45.1)	54,385	(70.2)
2016년	29,847	(37.7)	188,980	(45.9)	18,772	(Δ20.2)	48,609	(13.1)	12,603	(Δ49.4)	33,690	(Δ4.3)	99,629	(83.2)
2017년	68,104	(128.2)	158,883	(Δ15.9)	32,826	(74.9)	60,440	(24.3)	14,687	(16.5)	40,525	(20.3)	66,974	(Δ32.8)
2018년	91,622	(34.5)	98,301	(Δ38.1)	69,645	(112.2)	57,520	(Δ4.8)	31,509	(114.5)	40,523	0.0	82,467	(23.1)
2019년	160,557	(75.2)	122,701	(24.8)	92,093	(32.2)	75,038	(30.5)	45,611	(44.8)	50,752	(25.2)	64,179	(Δ22.2)
2020년	37,562	(Δ76.6)	6,195	(Δ95.0)	39,259	(Δ57.4)	7,992	(Δ89.3)	18,472	(Δ59.5)	5,695	(Δ88.8)	8,266	(Δ87.1)
2021년	940	(Δ97.5)	607	(Δ90.2)	23,800	(Δ39.4)	1,383	(Δ82.7)	18,817	(1.9)	51	(Δ99.1)	-	(Δ100.0)
2022년	53,182	(5,577.7)	15,677	(2,482.7)	50,932	(114.0)	12,416	(797.7)	42,502	(125.9)	6,095	(11,887)	20	0
2023년	125,016	(135.1)	92,210	(488.2)	76,617	(50.4)	65,849	(430.4)	59,880	(40.9)	34,895	(472.5)	12,138	(61,480.0)

자료: 상동

2. 농업 동향

한국의 농촌진흥청 추정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매년 증감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3 참조). 그런데 2023년에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총 482만 톤으로 전년의 451만 톤보다 31만 톤(6.9%) 증가했다. 이는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 기준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482만 톤)과 동일한 수준이며, 대북제재가 본격 실시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림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식량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연중 기온이 높았고, 강수량이 충분했으며, 일사량도 적절했던 등 기상조건이 양호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는 예년보다 발생빈도도 적고, 발생규모도 작았던 것이 식량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상 조건 이외에도 북한정부가 식량 증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정부예산에서는 농업 분야 예산지출이 전년보다 15% 증가³⁾했으며, 지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북한의 화학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2018년 수준에 근접했다(표 2 참조). 또한 북한은 기계공업에서 농기계 및 부품 생산에, 화학공업에서는 비료 생산에, 발전부문에서는 농업용 전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등 농업증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북한 식량 생산 추정결과는 북한의 공식 보도와 대체로 부합되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북한정부는 지난해말 전원회의에서 ‘알곡 목표 103% 달성’이라고 보도했고, 또 지난해 가을부터 2023년 농사가 ‘풍작’임을 주장해 왔다.

3) 농업부문 예산은 2023년 예산 수입·지출 계획을 발표한 최고인민회의(2023.1)에는 14.7% 증가로 되어 있었으나 2023년 예산 수입·지출 실적을 발표한 최고인민회의(2024.1)에서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 동향

북한의 경공업 부문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생산의 미약한 회복세가 2023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북중무역 동향(그림 2)에서 보았듯이 지난해에 플라스틱 제품, 섬유, 가발용 재료, 설탕, 대두유 등 경공업용 중간재 수입이 2022년에 이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간재를 사용하는 의류, 식품가공, 생활용품 산업의 기동률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공업뿐 아니라 금속, 기계 등 중화학공업에서도 제한적이거나 생산의 증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뒤에서 언급할 지난해 연말의 전원회의에서도 나왔듯이 김책제철소의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과 산소분리기의 설치 공사 완료를 비롯해 금속공업 분야의 핵심 설비투자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계공업에서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압축기 제작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속,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분야의 상당한 성과에 대한 북한의 공식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제재대상 품목인 금속 소재와 기계설비, 전자 및 기계 부품 등에 대한 비공식적 수입을 어느 정도 단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의 금속 및 기계 설비의 공급역량과 수입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밝힌 수준의 성과는 관련 소재, 부품, 설비가 비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⁴⁾.

4) 이석기(2024)도 2023년도 금속,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 나아가 주요 설비투자사업의 진척은 중국으로부터의 금속 및 기계류 비공식적 수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사실 2016-17년부터의 고강도 대북제재 이후 북중간에 제재대상 품목의 비공식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석기(2024), pp.51-52 참조.

아울러 전력 분야에서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강수량 등 양호한 기상조건은 수력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발전설비 보수 진전 등으로 화력발전도 생산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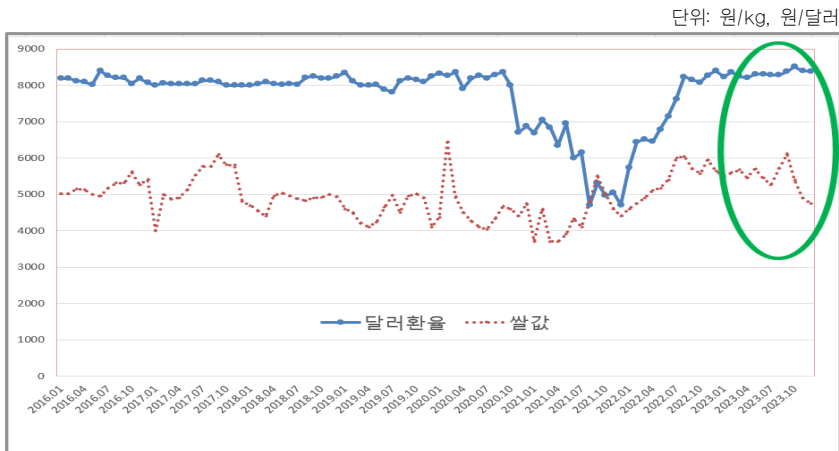
건설업에서도 성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 5만세대 건설과 농촌주택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계획을 약간 초과달성하는 등 살림집 건설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관개시설 공사 등 산업시설 건설도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2023년에 건설업은 성장세가 강해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대외무역의 대폭적인 증가, 경공업 생산의 증가,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지역간 인적·물적 이동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외국인관광은 여전히 재개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관광법 제정을 계기로 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등으로 내국인 관광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힘입어 상업·유통, 운수·숙박·요식, 관광 등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시장 물가·환율

2023년의 북한 시장 물가·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대북제재 · 코로나 이후 평양의 시장쌀값 및 달러환율 추이



자료: 데일리NK

사실 국경봉쇄 기간에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수입 중단에 따른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시장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시장의 달러 환율도 갑작스런 북한 원화 절상 움직임 등 불안정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70여개 물품의 시장가격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연간 시장물가지수에 따르면 국경봉쇄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16.0%, 12.7%로서 그 이전의 7년간(2013~19년)의 평균인 5.8%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하지만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 선언 및 국경봉쇄 완화 이후 시장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환율도 종전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지속되었다. 2023년에 시장 쌀값은 북한정부의 사실상의 가격관리 정책도 더해져 큰 흐름에서는

5) 자세한 것은 임 송 · 문승현(2023), pp.28-34 참조.

안정세를 보였는데 종종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추수가 끝난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예년 수준(kg당 5천원)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5. 기타: 북한의 비공식 대외거래

(1) 북러간 군사·경제협력

2023년도 북한의 대외경제거래에서 북중무역의 급속한 확대 못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은 북러간 군사·경제협력의 급속한 확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특히 지난 2023년 9월 북러 정상 회담 및 10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군사·경제분야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양국이 포탄을 비롯한 무기와 군사기술, 노동력과 식량, 유류 등 서로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러 무기거래 규모와 관련, “2023년 말 기준 컨테이너 5천여 개 분량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152mm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 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 발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⁶⁾. 물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북러간 무기거래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⁷⁾. 예컨대 지난해 10월부터 나진항에서 북한의 컨테이너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표, 연합뉴스, 2024.1.11.

7) 조남훈(2024), pp.119-121 참조.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기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무기들이 러-우 전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 군수공장들이 풀가동을 하고 있으며, 군수공장의 노동력이 모자라 민수공장에서 동원하기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군복과 같은 군수품도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대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우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 즉 밀 또는 밀가루, 옥수수과 원유·정제유를 제공받을 가능성이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로 수출하지 못한 원유와 밀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전에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밀과 원유를 지원 또는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 근로자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또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러시아 파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6-17년부터의 고강도 대북 제재로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이다. 러시아로서도 각종 건설현장 등에 인력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데다 이미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어 이 분야는 그 자체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증대는 북한 경제에 어떻게 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의 군수공장 가동률 증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민수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무기를 생산, 수출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비롯한 중간재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안이다. 다만 군수공장 가동률 제고의 효과이든, 무기 수출의 반대급부로 얻는 식량, 에너지, 노동력과건 등 여러 경제협력 및 지원의 효과이든, 2023년 북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2)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공식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대외경제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석탄 밀수출, 어업권의 밀거래 등이다⁸⁾.

북한은 또한 중국, 러시아 등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무역을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에 수행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 8월부터 공식 무역을 재개하면서 비공식 무역도 재개했고, 2023년에도 유지·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여러 가지 비공식적 대외경제활동에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암호화폐 탈취 행위이다.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8) 김석진(2021), pp.1-3 참조.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탈취하고 이를 다양한 돈세탁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암호화폐(가상자산) 탈취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이버보안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스(Chainalysis)는 북한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2023년에는 약 10억 달러 어치를 훔쳤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22년의 17억 달러보다는 다소 감소한 금액이다. 아울러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2억 달러, 2022년에 6.3~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

III. 2023년 북한경제 실적 평가

1. 2023년 북한경제 실적에 대한 공식매체의 보도내용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지난해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큰 성과를 강조하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당 제8차 대회 이후 한해 한해가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들로 기록되었지만 올해처럼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없었다”고 자찬했다.

9) 연합뉴스, 2024.1.25.

10) 그런데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모두 현금화되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상대적으로 추적·식별이 용이하지만 탈취한 자금의 현금화는 추적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현금화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보고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분야 실적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수치이다. 즉 많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산업과 품목에 대해,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게다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증가율뿐 아니라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 대비(즉 3년 전 대비) 증가율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매년 초의 신년사 및 그 대체물(연말의 전원회의)만 놓고 보면, 김정은 시대에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많은 수치를 제시해 가며 성과를 내세운 것은 집권한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대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내세울 성과가 별로 없으면, 성과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더욱이 수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사실상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식량)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¹¹⁾ 동시에 12개 중요고지의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전동기는 220%, 변압기는 208%, 베아링은 121%, 전기아연은 140%, 연은 121%, 종이는 113%, 소금은 110%, 화장품은 109%, 관유리는 100%, 마그네사크랑키는 104%로 증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도 경제분야의 종합적 성장 규모는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선철은 2.7배, 압연강재는 1.9배, 공작기계는 5.1배, 시멘트는

11) 12대 중요고지 실적에서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인지 아니면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즉 목표달성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일 가능성이 높다.

1.4배, 질소비료는 1.3배로 중요품목(지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욱이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식량(알곡) 실적을 최대 성과로 간주했다. 그는 “알곡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 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2개 중요고지에서 첫 번째가 알곡이었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보장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라는 위상을 가졌다. 게다가 “지난해(2022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박한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2023년의 식량 증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식량에 이어 주택건설 분야를 두 번째 성과로 꼽았다. 즉 평양 화성구역에 1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 서포지구의 4,100여 세대 살림집 건설, 지난 4년 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등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그는 세 번째로 기간공업부문의 성과를 지적했다.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기간공업 부문이 뚜렷한 생산 증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기술 혁신 사례를 특별히 칭찬, 소개했고, 금속공업 분야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과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들의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해 이미 조업에 들어가는 등 2023년을 금속공업부문이 주체화, 현대화 실현에서 크게 약진한 해로 평가했다.

2. 2023년 북한경제 실적 종합 평가

앞에서 2023년도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대외무역,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시장 물가·환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2022년보다 악화된 징후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제재·코로나(국경봉쇄) 충격이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국내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제는 대외경제 부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회복의 속도와 수준, 나아가 지속성의 문제는 남는다. 아직은 회복이 빠른 것도 아니고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북중무역이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다. 아울러 이런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3년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요인이 다소 제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비보강과 함께 일정 수준의 양적 성장을 추구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이와 관련, 공식통계상으로는 국가예산지출이 전년보다 0.8% 증가¹²⁾했지만 북한은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비공식적 대외거래를 통한 재원 확보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의 북한경제 상황은 2020~21년에 코로나 요인의 돌출에 의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12) 2023년 예산지출은 당초 계획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것이 이제는 코로나 요인의 해소에 의해 경제가 회복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3년 북한경제의 성과에 관한 이번 전원회의 보도 내용은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수긍과, 또 한편으로는 다소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된다¹³⁾. 예컨대 2023년이 2021년, 2022년보다 경제실적이 좋았고, 12대 중요고지의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 등은 대체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2023년도 경제 분야의 종합적 성장 규모는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등 중요품목(지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욱이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찬찬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경봉쇄 첫 해로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더욱이 2020년에는 $\Delta 4.5\%$ 로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비교대상 시기의 경제실적이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해이다.

또한 북한의 발표대로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대비 1.4배 늘어나기 위해서는 2021~2023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9%를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성장률은 명목 기준인지 실질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¹⁴⁾ 또한 GDP라는 것이 생산물의 부가가치의 합인데, 북한은 일부 국정 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키는 수준으로 여러 차례 인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시장가격과 괴리가 작지 않고, 더욱이 여전히 국정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것인지

13) 양문수(2024), pp.93-96.

1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2023), p.9.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연말의 전원회의와 1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행한 김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즉 그는 “지난해(2023년) 우리가 (중략) 당대회가 결정한 정보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된 대상들도 있습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보보강사업을 2023년에 기본적으로 완료할 것을 내세웠지만 2023년에 이를 끝내지 못해서 정보보강사업의 완료는 2024년으로 미루어졌다. 이와 관련, 또한 그는 “다음 해(2024년)부터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 미진되고 있거나 걸림돌로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 (중략)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환되게 하여야”한다고 지시했다.

사실 전원회의에서 2023년의 실적에 관한 김위원장의 보고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가 식량(농업), 건설(살림집), 기계공업, 금속공업인데 이들은 대체로 성과가 뚜렷한 분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가 채취, 건재, 임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인데 이들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분야로 볼 수 있다¹⁵⁾.

요컨대 2023년의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부문별 성과의 편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2개 중요고지와 기간산업에 중점을 두었고, 게다가 이른바 사회주의 애국운동, 사회주의 경쟁 등 ‘대중운동’ 방식으로 이들 우선순위 분야의 목표달성을 채근했기

15) 화학공업의 경우, 질소비료만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했지만 다른 분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들 분야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여타 분야는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 이전에도 대중운동 방식은 성과와 동시에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생산 증대의 과실이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다. 식량 생산이 상당히 증가했으면 당연히 협동농장의 결산 분배에서도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증가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말의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전국의 여러 농장들이 결산분배 이후 애국미를 바치겠다고 편지를 보내온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당중앙위 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고 제의했다. 즉 ‘자발성’으로 포장을 하면서 농장원들에게 애국미 납부를 사실상 강제할 가능성이다.

IV. 2024년 북한경제 전망

1. 북한의 2024년 경제 운영방향: 공식매체 보도내용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에도 연말의 당 전원회의와 연초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의 경제운영 방향을 2024년에도 지속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우선 12개 중요고지에 경제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간공업에도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업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계공업에 대해 별도로 언급, 기계공업의 모체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고 그 경험에 토대해 중요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경제운영에서 기간공업과 농업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기간공업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도 중요하지만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데다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계산업의 복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새로운 지방경제 정책, 즉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앞으로 매년 20개 군에 김화군 수준의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에 모든 시, 군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구상이다.

그런데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되어 2022년에 완료되었는데 기초식품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4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김화군 수준의 지방공장을 매년 20개 군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매년 60~80개 정도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연간 10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을 신설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야심적인 프로젝트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⁶⁾. 이런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는 앞으로 북한경제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2024년 북한경제 종합 전망

2024년에도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6-17년부터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이 미중전략적 경쟁, 북러밀착 등으로 제재가 다소 느슨해지고, 제재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제재의 불이행에 대한 비난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2024년에도 북한은 2022, 2023년처럼 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올해 북한경제의 움직임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한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다. 김위원장이 밝혔듯이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비보강의 완료’와 ‘모든 부문의 생산 증대’를 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대 중요고지, 평양 5만호 건설, 농촌주택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6) 이석기(2024), p.63.

다만 재원마련이 변수이다. 물론 올해 예산수입은 전년보다 2.7% 늘리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올해 예산지출계획은 전년보다 3.4% 증가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사업비는 0.4% 증가에 그쳤다¹⁷⁾. 게다가 현재의 고강도 제재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재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가발류 수출이 지난해 크게 늘었지만 아직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지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 결국 국내든 해외든 비공식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돈주 자금을 비롯해 민간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고 해외에서는 각종 비공식적, 불법적 행위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북중무역의 경우,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23년에 23.2억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12.9억 달러(125.6%)의 대폭적 증가를 기록했고, 팬데믹 직전의 2019년(28억 달러)의 81.6%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2024년에 북중무역이 2023년의 증가율과 증가폭을 넘어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물론 러시아와의 무역, 경험은 별개의 사안이다.

둘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국경 개방 및 대외교류협력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북중간 인적 물적 교류는 엔데믹 상황이 아니다. 물론 그 원인이 북한측에 있는지 중국측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만일


17) 북한은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시켜 국가예산지출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신설했고, 이 사업비 규모를 전년대비 9.5% 증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발전사업비는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비’와 ‘우주과학연구기관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즉 북한 정부가 예산지출을 다소 늘리면서 군사분야에 대한 투자지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지영·김갑식(2024), pp.3-7 참조.

북한측에 있다고 하면 ▲코로나 위기 재발 위험 요인이든, ▲외화부족 요인이든, ▲정치사회통제 강화 등 국내 정치사회적 요인이든, 국경봉쇄 완화 및 북중무역 속도·규모 조절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이 2023년과 유사할 것인지, 다소 상이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러시아의 대북지원 및 북중/북러 교역·경협의 규모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이다. 다만 여기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개양상,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과 같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북러간 군사·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러-우 전쟁의 추이, 종전 여부 및 시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올해 북중·북러 경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의 지속 이외에도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추가 파견, 러-우 점령지역 전후 복구사업 파견, 중국·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재개·본격화 등이 성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성사 여부 및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북중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화물운송보다 트럭 화물운송이 본격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둥-신의주간 트럭 운송재개 여부/시점과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여부·시점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2024년의 북한경제에는 북한 내부의 요인, 특히 경제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2024년의 국내 경제정책은 2023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23년에도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따라서 2024년 북한경제에도 북한 국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이, 특히 북중관계, 북러관계의 향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경제적 의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1.4.12.
- 양문수. “2023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나” 『코리아 리포트』. Vol. 11, 2023 Winter/Spring.
- _____.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 제73차 통일전략포럼 발표 자료, 2024.1.10.
- 임 송·문승현.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BOK경제연구. 한국은행, 2023.7.
- 이석기. “2023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4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조남훈.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최지영·김갑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분석과 합의: 대남 정책전환과 예산·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4.1.16.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합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3.12.31.

〈기타〉

- 『연합뉴스』.
- 『로동신문』.
-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2023 review and 2024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Moon-Soo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t is difficult to find signs or circumstance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3 that are worse than in 2022 in almost all fields, including foreign trade, agriculture, manufacturing, construction, service, and market prices and exchange rates.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3 can be seen to have a strong short-term rebound as the coronavirus factor is somewhat removed while the economy is on a downward curve in the mid to long term due to the impac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f cour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pursue a certain level of quantitative growth along with maintenance reinforcement and the expansion of North Korea-Russia military and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prolongation of the Russia-Ukraine war are important factors, but they are secondary factors. While the impact of sanctions and coronavirus (border closure) basically started as a shock to the external economy, which led to a sharp contraction of the domestic economy, the external economic sector is now recovering at a rapid pace, leading to the recovery of the domestic economy. However, issues remain regarding the speed and level of recovery and even its sustainability.

Even in 2024,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reak away from the long-term economic downturn or significant negative growth trend that has continued since 2017. This is because high-intensit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continued since 2016-17. In 2024, while North Korea's long-term trend will be maintained as in 2022 and 2023, there may be slight positive or negative changes in the short term.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it is not very likely that North Korea-China trade will exceed the growth rate and amount of 2023 in 2024. As long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main in place, there is little chance of exceeding the 2019 level. Of cours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re separate issues.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4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more by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direc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Russia relations, than by North Korea's domestic factors such as economic policy.

Key Words: North Korean Economy Policy, North Korean Economy Outlook, North Korean Sanction, COVID-19, 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